한중 FTA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대응방안 연구†

The Impact and industry Countermeasures of Kroea-China FTA in Jeju

이 용 완* · 김 윤 정**

(Lee, Yong-wan · Kim, Yun-jeong)

목 차

Ⅰ. 서론
Ⅱ. 한·중 FTA 체결의 의의
Ⅲ.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
Ⅳ. 제주 지역산업의 한·중 FTA 대응 방안
Ⅴ.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FTA를 적극 체결하고 있다. 10년전 칠레와 처음 체결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FTA에 대한 효과로써 체결 목적에 대한 성과 달성 여부는 여전히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다. 세계경제와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FTA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도시의 핵심 자원이나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제주 역시도 FTA 체결은 감귤을 중심으로 하는 농수산업 부문의 대응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주저자)

** 제주국제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 발효된 FTA에 대해 제주지역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FTA 효과나 직접적인 피해를 산출하기 쉽지 않지만, FTA를 무시하고는 글로벌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내 경쟁에서조차 위치를 점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동안 보호되어 왔던 지역의 고유 자원과 상품들은 FTA 체결로 세계시장의 상품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 상품이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운 일이다(이용완·김윤정, 2013).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이해관계가 큰 국가과의 FTA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활용도와 성과는 기대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지역 소규모 기업은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체결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 기준 이미 발효된 한미FTA, 한EUFTA, 한캐나다FTA의 11건 외에 한·중 FTA 등 최근 서명 및 타결된 FTA가 4건에 이른다. 현재 협상중인 FTA도 한·멕시코 FTA,한·일 FTA 등 5건이며, 검토중인 FTA도 한·말레이시아 FTA, 한·몽골 FTA 등 7건으로 FTA의 체결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11월 10일에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 한국은 근접한 지역을 내수시장으로 확보한 효과를 큰 장점으로 삼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서는 관세 철폐 대상 품목 수가 작아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중 FTA는 무역에 참여도가 낮은 내수형 지역 산업은 국내경쟁의 심화로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황영순·이선영·장정재, 2012).

특히 세계적 소비 시장인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감안했을 때 제2 내수시장으로써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의 62.4%로 높아 FTA 체결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FTA의 효과 창출은 FTA 체결이 상품경쟁력의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회전반의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추진정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성한경·김혁황·금혜윤, 2011).

한·중 FTA 체결 이전 제주지역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소 진행되어 왔으나, 체결 이후의 영향과 산업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의의를 살펴보고, 한·중 FTA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핵심산업이 FTA라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선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한·중 FTA 체결의 의의

2.1 FTA의 개념과 체결 효과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함에 따른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일반적으로 EU(유럽연합)이나, NAFTA(북미자유무역)과 같이 인접한 국가들간이나 일정 지역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한다. 기존에 이루어진 FTA는 주로 상품의 무역자유화나 관세인하에 집중했으나,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상품 교역에 있어서의 무역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대상이 확장되었다. 금융, 교육,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제거, 투자자유화를 통한 활성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관세청, http://www.customs.go.kr).

FTA는 일반적인 조약체결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라 2014년 6월 8일 대통령 훈령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FTA 정책은 2003년 작성된 FTA 추진 로드맵 초안에 기초하여 상대국 선정기준, 추진전략,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른 FTA 대상국의 선정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치·외교적 함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와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성한경 외, 2011).

10년전 칠레와 체결된 최초의 FTA 이후 부정적 경제효과에 대한 예측도 많았지만, 불이익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상대국가에 따른 경제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자유화 수준을 확대하고 투자 및 규범까지 포괄하는 FTA가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산업,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국내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도 동시에 추구하였다.

FTA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발생한 결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르다고 할 수 있으나, 김영귀·금혜윤·유새별·김양희·김한성(2014)은 FTA 추진 로드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소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다수의 FTA에서 90%를 넘어서는 자

유화율을 달성하고 미국, EU 등의 선진국과 ASEAN과는 서비스, 투자와 같은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수준의 FTA를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칠레나 ASEAN은 FTA 발효 직후에는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차 주요 경쟁국의 칠레, ASEAN과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선점효과가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EU도 발효 직후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워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못한 대내협상 과정과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수출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장한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었고, 반면 내수기업은 이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한경 외(2011)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의 관세율 변화 추이 효과와 상품경쟁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별 상품경쟁력 변화에 있어 한·칠레 FTA는 한국의 대칠레 상품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다수의 산업에서 상품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한·ASEAN FTA의 경우에는 상품경쟁력에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FTA 발효 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FTA로 인한 관세율의 변화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심지어 상품경쟁력이 낮아진 산업군도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FTA가 상품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김태인·이준건(2014)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글로벌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을수록 FTA에 대한 활용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FTA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FTA 수출 활용도 역시 함께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FTA 활용도가 FTA 활용에 따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아 원산지증명 등의 활용이 수출기업 보다는 수입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의 분석방법이나 관점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FTA가 추진된 지 이제 10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그 결과를 쉽게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데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기대했던 효과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FTA를 염두한 최소한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대상국가들과 동시에 FTA가 체결됨에 따라 각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 등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확인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체결시 기대했던 효과를 잠식하는 결과의 발생도 우려하고 있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2.2 한·중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4년 9월 한국과 중국 통상장관의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로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07~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 5월~2014년 11월까지 14차에 걸친 협상을 거쳐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2014년 11월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최종타결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13번째 체결된 FTA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표 1>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역국 가운데 수출, 수입, 교역, 수지 부문에서 제1위의 무역상대국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0~2013년간 연평균 13.9%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연평균 11.2%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중국과의 무역수준이 2013년 말 기준 21.3%의 비중으로 EU(9.8%)나 미국(9.6%) 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어 기존 FTA에 비해서는 개방 정도가 낮은 편이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 한국의 대중국 교역현황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1~9월	'10~'13 연평균 증가율
수출	금액	1,168.4	1,341.9	1,343.2	1,458.7	1,060.9	13.9
	(증가율)	(34.8)	(14.8)	(0.1)	(8.6)	(-0.7)	
	비중	25.1	24.2	24.5	26.1	24.9	
수입	금액	715.7	864.3	807.9	830.5	656.5	11.2
	(증가율)	(31.9)	(20.8)	(-6.5)	(2.8)	(7.1)	
	비중	16.8	16.5	15.5	16.1	16.6	
교역	금액	1,884.1	2,206.2	2,151.1	2,289.2	1,717.4	12.9
	(증가율)	(33.7)	(17.1)	(-2.5)	(6.4)	(2.2)	
	비중	21.1	20.4	20.2	21.3	20.9	
수지	금액	452.6	477.5	535.4	628.2	404.3	-
	〈증감액〉	〈128.1〉	〈24.9〉	〈57.9〉	〈92.8〉	〈-50.9〉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중 FTA의 협정문(산업통상자원부, 2014)은 서문 및 총 22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관련 6개 챕터(상품, 원산지(PSR 포함),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

제, SPS(위생·검역), TBT(무역기술장벽)), 서비스·투자 5개 챕터(서비스,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 6개 챕터(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의 5개 챕터(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분쟁해결, 제도, 최종조항)로 이루어졌다. 협정문에서 중국은 최초로 FTA에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챕터를 별도로 채택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양국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를 합의하고, 국내 농수산물은 대중 수입액의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중 30%는 양허제외를 취득하였다.

<표 2> 한·중 FTA의 전체 품목 양허 수준 비교

품목군		한국		중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일반품목	즉시	6,108(50%)	418.5억불(52%)	1,649(20%)	733.7억불(44%)
	(유관세)	4,125(34%)	80.4억불(10%)	958(12%)	87.1억불(5%)
	5년내	1,433(12%)	31억불(4%)	1,679(20.5%)	58.3억불(3.5%)
	10년내	2,149(18%)	173.3억불(21%)	2,518(31%)	312.5억불(19%)
	소계	9,690(79%)	622.8억불(77%)	5,846(71%)	1,104.5억불(66%)
민감품목	15년내	1,106(9%)	79.5억불(10%)	1,108(13.5%)	219.2억불(13%)
	20년내	476(4%)	34.1억불(4%)	474(6%)	93.75억불(5.6%)
	소계	1,582(13%)	113.6억불(14%)	1,582(19%)	312.9억불(19%)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852(7%)	42.9억불(5%)	637(8%)	149.9억불(9%)
	부분감축	87(0.7%)	22.8억불(3%)	129(1.6%)	100.1억불(6%)
	TRQ	21(0.2%)	5.7억불(0.7%)	–	–
	소계	960(8%)	71.3억불(9%)	766(9%)	250.1억불(15%)
합계		12,232(100%)	807.7억불(100%)	8,194(100%)	1,667.5억불(100%)
자유화율		11,272(92%)	736.4억불(91%)	7,428(91%)	1,417.4억불(8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4),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특히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 581개(36.1%), 민감품목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로 합의되었다.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함으로써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조기, 갈치 등) 등 주요 농수산물을 양허제외함으로써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중국은 전체 농수산물의 93%(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체결된 FTA에 비해서는 개방화의 정도가 낮지만 근접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제조업은 기술우위에 있는 기계 및 장비 등에서 수혜가 기대되고, 의료기기, 화장품, 식료품, 패션기능성의류 등 고급 소비상품의 유통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집약적인 농업분야와 철강 등은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 부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법률, 건축,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확보함으로써 문화컨텐츠, 건설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챕터를 별도로 채택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제품은 중국내 생산 비중이 높고 관세율도 낮아 FTA에 따른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지만, 중국측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세계 최대의 인터넷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소매시장에서 화장품, 패션 등의 점유가 기대된다(허문종, 2014).

그동안 통관시 애로를 겪던 요인들은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와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위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화 700불 이하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혜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하여,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해졌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하지만, 관세장벽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상품 유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중 FTA는 타결 수준이 낮아 경제적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했던 기존 FTA에 비해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품질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가격 경쟁력은 높은 중국 상품의 수입 유통은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주력분야가 대다수 양허제외되어 중국에 기술을 추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해소하기 어려웠던 서비스시장, 통관 및 인증시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은 완화됨으로써 관세인하와 더불어 중국시장 진출이 다소 수월할 것이라는데는 동의하고 있다(엄부영·홍성철, (2014).

Ⅲ.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

3.1 제주 지역산업 현황 및 수출 구조

제주지역은 3차 산업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4.1%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15). 이는 내국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소매, 운수업 등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제주경제가 견인됨으로써 3차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기준으로 49,252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약 93%의 사업체는 9명 이하의 기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50%가 근무하고 있다. 1차 산업 종사자는 감소추세이나 2차 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3%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표 3>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

(전년대비, %)

구 분	비 중 (2013년)	2012	2013	2014
GRDP	(100.0)	5.2	4.9	4.1
농림어업	(13.9)	1.8	2.4	1.6
제조업	(2.4)	-0.6	18.8	1.8
건설업	(7.7)	10.1	4.0	5.1
서비스업	(66.0)	5.0	3.3	4.3
(도매및소매)	(8.2)	1.7	4.7	5.8
(운수업)	(4.5)	21.2	10.2	7.8
(숙박및음식점업)	(6.1)	6.5	-1.4	2.8
(부동산및임대업)	(7.7)	-0.8	2.8	3.1
(사업서비스업)	(3.6)	14.9	-3.8	-4.4
(공공행정및국방)	(12.5)	7.5	4.5	6.4

자료 : 박진호·김민수·강경아(2015), 2014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5년 여건점검,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지역은 지역산업을 통해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기준 및 제주지역 자체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표산업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2015년부터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청정헬스푸드산업, 풍력·전기차서비스산업의 4개 주력산업과 휴양형미케어, 화장품뷰티산업 2개의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의 2009~2012년 연평균 기업체수 성장률은 3.5%, 종사자수 성장

률은 3.3%에 이르고 있으며, 협력산업의 기업체수 성장률은 7.2%, 종사자수 성장률은 4.4%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산업을 구성하는 주력산업과 협력산업의 경쟁력은 청정헬스푸드, 휴양형미케어, 물응용 산업은 지역내 산업비중인 집적도가 매우 높아 한·중 FTA 체결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1차 산업의 점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산업군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대표산업에서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는데, 물응용산업과 청정헬스푸드산업의 특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역 대표산업군들은 긍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뷰티, 관광디지털콘텐츠, 휴양형미케어, 청정헬스푸드산업은 성장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테크노파크, 2015)

수출 역량은 지역산업 육성 등을 통해 내수 중심의 기업활동이 수출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활성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표 4>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 4년간 증가율이 184.4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증가도 2009년 114개사에서 2013년 203개사로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50여개의 수출품목에서 약 200여개의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 증가는 지역내 고용 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수출기업의 직접 고용현황은 2011년 4,348명에서 2012년 4,794명, 2013년 5,0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수출은 증가세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전환되고 있다. 가공식품의 수출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2%가 증가되었고, IT와 CT 등 문화컨텐츠와 관련된 상품군에서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가능성과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표 4> 제주지역 수출 정책 추진의 주요성과

(단위 : 백만달러, 개)

구 분	수출실적	수출기업	수출품목	수출국가
2009	261.3	114	58	31
2010 (전년비증가율)	248.3 (33.3%)	120 (5.3%)	90 (55.2%)	33 (6.5%)
2011 (전년비증가율)	410.8 (17.9%)	157 (30.8%)	109 (21.1%)	41 (24.2%)
2012(전년비증가율)	460.1 (12.0%)	191 (21.7%)	167 (53.2%)	47 (14.6%)
2013 (전년비증가율)	743.2 (61.5%)	203 (6.3%)	207 (24.0%)	55 (17.0%)
2014(목표)	800	300	250	55
4년간 증가율('09.→' 13.)	184.4	78.1	256.9	77.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 수출 중장기(2015-2021) 계획-제주 수출 3.0 플랜.

이러한 결과에 따라 수출기업의 판로확대 및 유통망 구축은 기업 성장과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도내 기업의 수출 참여 유도를 위한 방법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주요 수출품목은 LED TV의 수출비중이 23.5%로 가장 높고, 활넙치 4.9%, 아스팔트액정 2.9%, 모바일메모리 1.5%의 비중으로 지역산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비중이 높지 않다. 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더욱 시장확대에 주력함과 동시에 제주지역 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들의 수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수출 전략이 시급하다.

3.2 한·중 FTA가 제주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여전히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제주는 예외적으로 적극적인 중국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지역의 수출은 2012년까지 일본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40%이상의 수출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2013년 미국 수출 규모가 큰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미국시장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3년 기준 55개 국가로 수출이 진행되면서(제주특별자치도, 2014),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 수와 품목수가 많아지게 되어 FTA 체결에 따른 피해규모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생산력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모두 제주와 비교하지 못할 수준으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본시장만으로는 지역산업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중 FTA를 통해 제주지역의 주요 생산물이 양허제외 되었더라도 가격경쟁력이 높은데다 차후 품질수준까지 확보한 다양한 중국 농수산물이 수입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수출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표 5> 주요 수출국가 및 수출품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3 수출액(비중)	2012 수출액(비중)	주요 수출품목
수출총액	334.4	200.0	
미 국	190.6(57.0%)	19.6(9.8%)	활넙치, LED 평판 TV, 감귤, 건조감귤, 건조김치, 먹는물, 돗(분말), 모바일메모리, 테디베어인형
일 본	66.2(19.8%)	91.0(45.5%)	활넙치, 백합, 삼비디움, 양배추, 파프리카, 초콜릿, 감귤농축액, 먹는물, 소라, 막걸리, 화장품, 찐톳

중 국	24.4(7.3%)	20.1(10.1%)	화장품, 유자차 등 차류, 소주, 냉동고등어, 찐톳, 아스팔트액정, 폐비닐
대 만	11.8(3.5%)	18.5(9.3%)	양배추, 모바일메모리, 넙치, 아스팔트액정
홍 콩	4.0(1.2%)	7.2(3.6%)	초콜릿, 건해삼, 감귤, 화장품, 모바일메모리, 디지털셋톱박스
러시아	3.6(1.1%)	2.2(1.1%)	감귤, 백합
싱가포르	2.6(0.8%)	1.4(0.7%)	녹차, 감귤, 먹는물, 디젤엔진
인도네시아	2.1(0.6%)	0.1(0.1%)	먹는물, 디지털셋톱박스
영 국	1.9(0.5%)	15.6(7.8%)	감귤
베네수엘라	1.8(0.5%)	4.4(2.2%)	디젤엔진
베트남	1.5(0.4%)	1.7(0.8%)	먹는물, 디젤엔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 수출 중장기(2015-2021) 계획-제주 수출 3.0 플랜.

한·중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주지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두었던 농수산업 분야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1차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에 중점을 둠에 따라 제주도가 요구해온 감귤,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무, 넙치류, 갈치, 조기 등 총 11개 품목의 양허제외가 결정되었다.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 고성보·송병호·박창현(2012)의 연구에서는 한·중 FTA 발효 후 제주지역의 감귤생산은 15년간 1조3,603억원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효 후 15년차인 2028년에는 2011년과 비교했을때 재배면적이 3,200ha 감소하고, 생산량은 6만 5,800톤 감소하며, 자급률도 19.2%p 감소함으로써 실질조수입이 3,111억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예측은 감귤 등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제외 됐지만,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낮아 관세 영향이 매우 작은 품목들도 있어 점진적으로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제주의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 옥돔, 소라, 톳 등 6개 품목도 양허제외 됐지만,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라 대체 가능한 품목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관광산업 분야는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 지역산업 관련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가공식품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로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OTRA, 2014). 따라서 관광산업과 밀접한 휴양형 미케어, 관광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고급 소비재 선호에 따른 향장품, 물응용상품, 웰빙 욕구에 적합한 청정헬스푸드 등의 산업과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신뢰가 낮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아직 중국 내 한국산 음식료 제품의 입지는 1% 미만으로 매우 작은 편이나, 고급스러운 상품

이미지로 포지셔닝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하나금융그룹, 2014).

하지만, 제주 지역내 기업의 규모 및 유통 수준이 내수 중심으로 시장성이 있는 상품 개발이나 FTA 활용에 적극성을 보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제주기업과 같이 노동집약적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주 농산물 등의 자원이 양허제외 되었더라도 저가의 중국산 상품이 유입된다면 대체위험성이 높다.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산업 역시도 제주의 농수산 자원을 활용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므로 장기적으로 지역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중 FTA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FTA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주지역 수출기업들의 FTA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다. 제주상공회의소 (2014)의 제주지역 수출기업 및 수출예비기업 10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FTA 인지도 조사 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으며, FTA 활용 실적도 13개 사업체에서만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FTA에 대해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FTA 미활용 요인으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FTA 정보부족(54.2%), FTA 미체결국가로의 수출로 인한 필요성 부재 (16.7%)의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필요하더 라도 정보가 없어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응답업체들은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절차가 수월해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품과의 내수시장 경쟁심화(47.9%)로 판매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수출기업 및 수출예비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인식 저하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 FTA 체결 영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방안을 기업이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이 낮고, 지역자원 및 상품의 열위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 6>과 같이 기회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수산업은 점진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국 소비자의 웰빙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증가함으로써 자국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및 유기농 등의 고급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중국의 정책적 부동산시장 억제나 근거리 유학에 대한 교육열로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인의 투명한 투자와 교육서비스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표 6>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 산업의 기회요인

구 분			기회요인
농수산업			· 웰빙과 안전에 대한 의식 증가 · 식생활의 질적 추구 · 자국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 저하 · 친환경 및 유기농에 대한 수요 증대
서비스산업			·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으로 해외시장에 관심 ·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근거리 해외 유학 ·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챕터 채택으로 제주 상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역산업진흥사업	주력산업	물응용	· 인구고령화로 메디컬 음료, 헬스음료 등의 잠재욕구 존재 · 기능성 물을 응용한 테라피 등 건강 관리 욕구 충족 · 상품 원료의 우수성을 바탕에 둔 구매의사결정이 커짐
		관광디지털콘텐츠	· 소득 및 소비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여가와 레저생활 증가 · 가격 중심에서 품질 및 차별화 중심으로 구매요인의 변화 · 행복 및 삶의 질적 개선 위한 문화생활 추구
		청정헬스푸드	· 중상위 계층이 확대로 청정이미지 활용한 고급 식품 선호
		풍력·전기차서비스	·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환경보호 관련 산업의 중요성 증대로 전기자동차, 태양광, 풍력서비스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진출 기회 증가
	협력산업	휴양형미케어	· 화장 경험 없는 여성과 미용에 관심있는 남성 시장의 잠재력 높음 · 한국산 향장품과 미용 상품에 대한 욕구가 큼 ·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휴양과 의료, 미용, 향장품간의 융복합으로 상품 연계성 높음
		화장품뷰티산업	

자료 : 김부용(2013),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테크노파크(2015),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한국무역협회(2014), Trade Brief 제79호를 참고하여 재구성.

특히 중국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와 소득 증대로 인한 중국 내수시장의 확장은 중산층의 확대를 동반하면서 이들이 핵심소비 계층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상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거나 고급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부용, 2013).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회요인으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메디컬 기능이 포함된 물응용산업이나 청정헬스푸드산업에서 원료의 친환경성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프리미

엄 상품으로써 브랜드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의 관광 및 레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제주의 문화를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은 휴양형미케어산업과 화장품뷰티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향장품, 휴양, 의료, 미용간의 상품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청정 관광도시로서의 컨셉을 확보함으로써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2014년 12월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최대 규모의 경제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경제 뉴노멀(new normal)을 의미 하는 신창타이(新常態)가 중국경제 정책의 기준으로 부상하였다. 이를 실천하고 중국경제의 단계별 발전 특성에 따라 신창타이(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9개 분야와 8개의 중점사항이 제시되었다(한국무역협회, 2014).

<표 7> 경제발전 신창타이(新常態) 주요 내용

9개 분야	주요내용	8대중점사항
소비수요	개성화, 다양화 소비가 주류	· 가계수요 만족 · 시장과 소비심리 분석 · 사회예측 유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기업가 재능 발휘 · 교육 통한 인력자원의 질 강화 · 생태문화 건설 강화 ·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
투자수요	신기술, 신상품, 산업종, 신비즈니스모델에 투자 기회 증가	
수출/국제수지	저비용우위의 변화, 고기술 수입 및 규모 해외 진출 동시 발생	
생산능력 /산업조직방식	신흥산업, 서비스업, 소형기업 확대되고 생산 소형화, 지능화, 전문화가 산업조직 방식의 새로운 특징	
생산요소 상대우위	인구노령화, 농업인구 감소, 규모의 경제효과가 줄면서 인력자원 질과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발전	
시장경쟁 특징	시장경쟁의 점진적 질량화, 차별화 위주로 변화	
자원환경 제약	환경소모 발전의 한계 도달, 반드시 녹색저탄소 순환발전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	
경제위험 누적과 해소	경제위험은 총체적으로 제어 가능하나 과대차입 및 버블로 인한 각종 위험은 일정기간 지속	
자원배분 /거시조정	생산과잉 전면 해소와 시장시스템 통한 미래 산업발전 방향 모색	

자료 : 중앙경제공작회의공보 내용을 정리한 한국무역협회(2014), Trade Brief 제79호를 인용.

제주지역의 중국시장 진입도 산업구조의 균형을 위해 신흥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중국내 경제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중 FTA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제주 지역산업의 한·중 FTA 대응 방안

4.1 중국시장 진출 기회로 인식 전환

한·중 FTA의 발효로 지역자원은 보호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중국산 수입 상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임으로 자원 보호에 대한 의미는 미약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이외의 요인에 집중하여 특화된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와의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체결국이 확대될 것이므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중국내 진출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잠재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에 적합한 상품 생산을 위해 중국시장 환경 분석을 수시로 진행하여 트랜드에 맞춘 상품 개발 기회로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제주 지역산업 부문에 있어서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략이 시급하다. 개방된 품목 중 주력 수출 품목이 아니더라도 제주지역에서 생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수출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 상품 자체의 품질력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디자인, 문화컨텐츠의 접목 등에서 차별적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수출기업 정책도 다각적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관련 제도를 확인하여 FTA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엄부영·홍성철, 2014).

4.2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체질전환과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제주지역 1차산업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는 했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간접피해와 대체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귤산업과 같은 제주지역 주요 핵심산업은 내수 중심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고, 감귤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시에도 상품력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차 산업을 통한 고품질 농수산물에 대한 중국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다.

그동안 감귤산업에 대한 고민과 위기시 대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면서 생산자의 역할이 모호하고 지자체에 의존적인 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감귤 재배 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신품종을 개발해야 하며, 유통시스템도 신선함을 유지하고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성보·송병호·박창현, 2012).

중국 감귤의 당도는 제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종류가 많아 제주 감귤 보다 소비자 욕구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다. 감귤을 비롯한 핵심산업은 농수산물을 원물로 수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가공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잠재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생산되어야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이 농수산업 외에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가능한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문화컨텐츠 상품의 중국 진입이 활성화 될 여건이 마련되었으므로, IT산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기반 산업에의 집중이 필요하다.

비자 면제 지역으로서 서비스와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중국과의 합자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중 FTA에서는 중국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함으로써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유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등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구와 역직구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은 향장품류, 청정친환경식품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시장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하나금융그룹, 2014).

4.3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중국시장 진출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인식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중 FTA 체결시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 시키는 조항을 명시하여 이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출시 한중FTA 기준에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여 상품 제조 계획단계에서부터 중국에서 원하는 원재료 비율로 구성되어야 FTA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자국 제품의 보호를 위한 개별 상품의 유입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한·중 FTA 활용이 중국 수출을 수월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제주 지역상품의 질과 상품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 FTA 활용을 통한 중국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수출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원기관간 비슷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아 지원 이후의 성과 창출에 대해 수혜기업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수출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대다수이므로, 도내 영세한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수출계획이 전략적으로 추진되도록 수출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증명 발급 등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수출지원사업에 있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사업의 적용은 성과창출에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수출 기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 수출을 위한 진입과 관련된 해외마케팅은 품목과 중국내 수출 대상 지역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시장 욕구에 적합한 상품이 수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고, 수출 전문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들이 수출시 애로를 감소시키고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을 대행해 주거나 컨설팅해줄 수 있는 수출 지원 전문기업의 육성도 절실하다.

특히 FTA 체결 국가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다양한 규정으로 중소규모의 수출입기업의 체결국으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유발하거나 FTA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FTA 전담 기관에서는 통합적인 수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과 FTA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4 제주 친환경 이미지의 브랜드화

중국 소비자의 자국 상품의 신뢰저하와 중산층 확대에 따른 고급 상품의 수요에 따라 제주산 상품의 친환경적 이미지로 농수산물 및 상품 수출시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해당 상품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밖에 없다(이용완·김윤정, 2013). 이는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국시장에서의 제주 상품의 위상을 스스로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주상품은 친환경 자원 이미지를 바탕으로 프리미엄급의 상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가격경쟁으로 무장한 중국상품과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프리미엄급 이미

지의 확보를 위해 중국시장에서 제주 상품과 제주지역의 청정함에 대한 적극적 매체 노출이 이루어져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완·김윤정(2014)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 노출 효과에 따른 원산지이미지는 제품이미지와 제품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매체 노출이 제주 상품의 이미지 강화와 재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제주 수출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매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이미지로 포지셔닝하여 제주산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내 주요 표적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한 광고매체 선정과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브랜드의 기준도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따른 신뢰를 보유해야 한다.

4.5 지역 기업의 규모 확대로 한-중FTA 활용 가능성 증대

제주기업들은 매우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FTA의 활용이 쉽지 않다. 영세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규모를 증대시킴으로써 FTA 협약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중FTA는 제주 기업과 같이 규모가 제한적인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주기업의 규모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품목 및 산업군의 동일성에 있어 네트워크가 가능한 기업간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기업들간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도외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품질 상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중국시장 욕구에 적합한 상품 R&D, 공동마케팅과 함께 중국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등을 강화시켜야 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산학연 융합이 가능한 단지를 개발하여 도외 기업의 유치를 통한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제주지역 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 구축과 이전기업과 융합가능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특히 한-중FTA 체결로 소공인의 소상인화가 예측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글로벌화가 되어야 한다. 소규모 점포단위로 운영되어서는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시장이나 협회 수준으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엄부영·홍성철, 2014).

4.6 특화 품목 개발과 상품군의 다변화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입 구조는 산업과 산업간 교역 위주였으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아지면서 하나의 산업군 내 품목에 대한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다(김영귀 외, 2014). 산업군내 품목은 수출상품과 수입상품간 유사한 품목이 많이 생기고 있어 수출상품에 대한 차별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자동차나 철강 등 한-중FTA 체결로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가 지역산업으로 추진중인 산업군 내에서 특화된 품목을 도출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특화 상품은 관광산업과도 연계하여 수출뿐만 아니라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수출국과 수출품목은 아직 제한적으로 소수 기업의 수출기여도가 매우 높은 구조이다. 수출국의 다변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본과 미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편중되고 있어 품질 외에 상품력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 안전성, 이미지 등에서 탁월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품 범위가 매우 작다. 자원과 문화, 자원과 산업 등 여러 부문을 결합시켜 도출할 수 있는 상품의 수를 확대할 수 있어야 어느 시장에서는 제주 상품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제주지역에서는 한·중 FTA 이전까지 체결된 FTA의 체감효과는 미미했으나, 한·중 FTA는 제주가 핵심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던 산업군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고있다. 하지만, 아직 한·중 FTA에 대한 피해규모와 기회요인이 명확하게 분석되지 못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수출기업 및 수출예비기업이 FTA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고,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 취득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가 제주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회요인을 통한 한·중 FTA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주지역은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 이미지의 구축을 통해 제주 상품에 전이

시킴으로써 중국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중국시장 내에서의 대응이 쉽지 않고, 전략적 대표 수출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가 미흡한데 따른 물류비의 과다 부담과 해외시장 대응 역량의 부족 등은 한·중 FTA가 제공하는 기회요인 조차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FTA의 활용이나 수출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나, FTA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속적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주요 핵심산업인 농수산업의 친환경 이미지로써 품질 수준 향상을 통한 상품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관광산업과 지역산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상품의 개발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상품으로써 FTA의 활용도를 높여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성보, 송병호, 박창현(2012),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

김부용(2013),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주본부.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김양희, 김한성(2014),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태인, 이준건(2014),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16(1), pp.225-251.

박진호, 김민수, 강경아(2015), 2014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5년 여건점검, 한국은행 제주본부.

산업통상자원부(2014),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성한경, 김혁황·금혜윤(2011),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엄부영, 홍성철(2014), 한·중 FTA의 對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이용완, 김윤정(2013), FTA 대응을 위한 제주의 도시이미지 강화 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14(2), pp.269-285.

이용완, 김윤정(2014), 수출 제품의 원산지이미지가 제품이미지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시장의 매체 노출 효과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15(4), pp.335-353.

제주상공회의소(2014), 제주지역 기업체 수출전망 및 FTA 활용·대응방안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 수출 중장기(2015-2021) 계획-제주 수출 3.0 플랜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테크노파크(2015),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하나금융그룹(201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하나 산업정보, 제88호.

한국무역협회(2014), Trade Brief 제79호.

한국은행 제주본부(2015), 2014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5년 여건점검.

허문종(2014), 한·중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황영순, 이선영, 장정재(2012), 한·중·일 FTA와 부산지역 산업대응전략, 부산발전연구원.

KOTRA(2014), 한·중 FTA 발효 후 대한 수입 확대 전망.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국문요약

세계경제와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FTA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제주 역시도 한·중 FTA 체결은 감귤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자원이 양허제외 되었으나, 대응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대체 상품의 유입에는 글로벌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내 경쟁에서조차 위치를 점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 기업은 소규모로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약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만 FTA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산업인 농수산업의 친환경 및 유기농 상품화를 통해 프리미엄급 상품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지역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다양한 품목의 개발과 문화컨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한·중 FTA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